

## 고려말 · 조선초 진주지역 ‘父老’의 존재와 성격\*

박 용 국\*\*

- I. 머리말
- II. 향촌의 결사체와 부모
- III. 부모의 인적 관계망과 변화
- IV. 축석루 중건과 부모
- V. 맺음말

### 국문초록

이 연구에서는 여말선초 진주지역의 父老의 존재와 인적 관계망 및 활동을 규명함으로써 여말선초 진주지역 사족 구성의 변화의 일단을 파악하고자 했다.

父老는 金剛社라는 고려말 진주지역 결사체의 구성원이다. 부모와 금강사는 고려말 진주지역 재지세력의 성격을 반영하는 자료이다. 또한 長者院도 부모의 존재와 깊이 관련이 있는 공간적 특성을 지닌 재지세력의 교유장소였다. 고려말 진주지역의 부모는 재지세력의 하층부를 이루고 있던 향리층이 아니라 그들로부터 분화하여 사족화한 가문 출신들이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8S1A5B5A07073092).

\*\* (사)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 pyg941021@hanmail.net

었으며, 13세기 이후 대내외적 배경을 바탕으로 성장한 文士로서 유교 지식층이었다.

고려 말의 부로는 여말선초의 정치·사회변화와 맞물려서 재편을 겪었다. 1413년 축석루 증건을 주도한 姜順과 崔福麟 등 선초의 부로는 앞 시대와 달리 진주 토성 가문 출신과 타읍 출신 사족들로 이루어진 인적 관계망을 형성하고 있었다. 이들은 중앙의 후원자 영의정 하륜과 밀접한 정치적 관계 속에서 축석루 증건을 주도하였다. 또한 그들은 남강 저습지의 안정적인 농업생산력 확보·개간을 위한 제방 축조와 水田의 관개를 위한 水車의 보급에 앞장서는 등 진주지역의 사회·경제적 변화를 주도하였다.

◆ 주제어

---

진주, 父老, 金剛社, 長者院, 蠶石樓

## I. 머리말

진주는 685년(신문왕 5) 菁州의 州治가 두어진 이래 고려시대 경상도 네 개의 계수관 가운데 한 곳이었으며, 1392년(태조 1)부터 1402년(태종 2)까지 진양대도호부가 두어졌던 지역이다.<sup>1)</sup> 이처럼 진주지역은 통일신라 이래 지방 통치체제의 중심지의 한 곳이었다. 특히 여말선초 진주지역 출신 인물의 정치·사회적 활동의 중요성에 비해 여말선초 재지 세력 재편 등 진주지역의 사회 변화에 관한 연구는 지금까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것은 고려 말기 지역의 대표적인 재지세력 가문이 배출한 진양하씨 司直公派의 顯祖 元正公 河楫(1303-1380), 진양하씨 侍郎公派 현조 河允潏(1321-1380) 등의 생몰년조차 인물 사전류<sup>2)</sup>에 밝혀져 있지 않은 사실에서도 잘 알 수 있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는 政堂文學에 오른 文敬公 姜君寶(1312?-1380)의 어머니 永嘉郡夫人權氏(1293-1378)의 안동 권씨 가문·恭穆公 姜耆(1339-1400)의 처부 진양하씨 사직공파 원정공 하즙과 하즙의 처부 철원부원군 李瑀 등 通亭 姜淮伯(1357-1402) 가문의 혼맥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전제되지 않음으로써 그 가문의 재지적 기반과 여말선초의 지속적인 정치적 성장을 제대로 해명하지 못했다.<sup>3)</sup> 이외 진양정씨 郊隱 鄭以吾(1347-1434) 가문의 재지적 기반과 정치적 성장도 마찬가지이다.

앞의 문제는 관련 자료의 발굴과 연구가 미진했던 것에서 비롯했다. 물론 앞의 두 인물의 생몰년을 밝힌 연구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전론의 연구가 아닌 인물의 가계 규명 등에서 부분적으로 언급되었을 뿐이며,<sup>4)</sup>

1) 『三國史記』 卷8, 新羅本紀 神文王 2年 5月條; 『태종실록』 권4, 태종 2년 12월 16일(을축); 『경상도지리지』 진주도; 『세종실록지리지』 진주목.

2) 『한민족문화대백과』·『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진주향토문화대전』 등에 실린 하즙과 하운린의 항목 참고.

3) 李樹健, 『韓國中世社會史研究』, 一潮閣, 1984, 309-311쪽; 강제훈, 「조선초기 家系繼承 논의를 통해 본 姜希孟家の 정치적 성장」, 『조선시대사학보』 42, 2007, 9-22쪽.

4) 박용국, 『지리산 단속사』, 보고사, 2010.

여말선초 진주지역의 사회 변화의 규명으로까지 나아가지 못했다. 본고에서는 지금까지 관심을 끌지 못한 浩亭 河崙(1347-1416)의 아버지 하윤린이 1366년에 결성한 金剛社의 구성원으로서 父老와 하륜이 矗石樓 기문에서 밝힌 부로에 주목하고자 한다. 두 자료에 보이는 부로는 여말선초 진주지역의 사회 변화를 반영하고 있는 사족 가문의 인물들을 포함한 재지사족이라고 여겨진다.

본고의 목적은 여말선초 부로의 내부 구성과 그 인적 관계망을 밝히고, 여말선초 사회변동 과정에서 진주지역 재지사족의 동향과 그 성격의 변화를 파악하는 데에 있다.

첫째, 1366년에 결사된 金剛社의 구성원인 부로와 1388년에 건축한 長者院을 통해 고려말 진주지역의 부로의 존재와 성격을 규명하겠다. 둘째, 여말선초의 부로의 인적 관계망을 정리하고 분석함으로써 부로로 통칭되는 진주지역 사족의 변화를 파악하고 한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인물의 생몰년 등 생애의 일부가 밝혀질 것이다. 셋째, 조선초의 부로의 존재와 성격은 직접 관련된 자료와 간접 자료를 분석하여 변화된 부로의 성격을 규명하려고 한다.

본고에서는 부로의 존재와 성격을 규명하는 데에 여말선초에 지어진 <晉陽府院君河公神道碑銘 并序><sup>5)</sup> · <有明朝鮮國贈諡恭穆姜公墓誌銘 并序> 등의 비문류, <晉州開慶院記> · <矗石樓記> · <鳳鳴樓記> · <晉州鄉校四教堂記> 등의 기문류, 진주지역의 토성 강씨 · 하씨 · 정씨 가문과 관련 여말선초 여러 비문과 문집 및 족보, 『고려사』 · 『고려사절요』 · 『태종실록』 등의 관찬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비판 · 활용하는 방법에 의존할 것이다.

5) 『春亭集』 卷12, 碑誌 <有明朝鮮國贈忠勤翊戴愼德守義協贊功臣大匡輔國崇祿大夫領議政府事晉陽府院君河公神道碑銘 并序>. 이하 <晉陽府院君河公神道碑銘 并序>로 약칭하겠다.

## II. 향촌의 결사체와 부로

여말선초 군현이나 지역촌, 또는 국가 차원의 父老의 주요한 사례를 일괄하여 살펴보면 여말선초의 부로는 주로 고을의 장로를 통칭하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나 <安東藥院記>에서는 향리와 구분되는 존재로서 재지사족이나 富民, <中寧山皇甫城記>·<金化新館記>에서는 유향품관을 지칭하기도 했다.<sup>6)</sup> 한편 여말선초 진주지역의 부로 관련 기록에는 그 존재와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단서가 있다.

春亭 卞季良(1369-1430)이 1412년에 지은 하윤린의 신도비문에는 ‘鄉之父老’만이 아니라 ‘鄉之長者’라는 진주지역의 재지세력으로 추정되는 존재가 확인된다.<sup>7)</sup> 또한 교은 정이오가 1388년에 지은 <晉州開慶院記>에 보이는 ‘長者院’의 장자도 고려말 진주의 부로의 존재와 성격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라고 볼 수 있다.<sup>8)</sup>

하윤린의 신도비문에 의하면 고려말 진주지역 부로는 1366년에 호정 하륜의 아버지 하윤린이 결성한 金剛社의 구성원이었다.<sup>9)</sup> 이와 관련한 내용은 다음에서 알 수 있다.

을사년(1365) 봄에 고향으로 돌아왔다. 가을에 정승공이 과거에 급제하고, 이듬해(1366) 史官이 되었다. 공이 말하기를, “조정에 벼슬하는 아들이 있고 나는 늙었으니, 다시 벼슬하고 싶지 않다.”라면서 고을의 부로들과 함께 金剛社를 결성하고, 한가히 노닐면서 세월을 보냈다.<sup>10)</sup>

6) 『稼亭集』 卷6, 記 <清風亭記>; 『稼亭集』 卷5, 記 <寧海府新作小學記>; 『牧隱文藁』 卷1, 記 <靈光新樓記>; 『牧隱文藁』 卷1, 記 <安東藥院記>; 『三峯集』 卷3, 書 <登羅州東樓 諭父老書【錦南雜題○乙卯】>; 『陽村集』 卷14, 記類 <永興府學校記>; 『동문선』 권76, 기 <中寧山皇甫城記[李穡]>; 『樗軒集』 卷下, 記 <金化新館記>.

7) 院君河公神道碑銘 并序>. 이하 <晉陽府院君河公神道碑銘 并序>.

8) 『新增東國輿地勝覽』 卷30, 晉州牧 驛院條; 『郊隱集』 下, 記 <晉州開慶院記>. 『신증동국여지승람』은 이하 『신증』으로 약칭하겠다.

9) 『春亭集』 卷12, 碑誌 <晉陽府院君河公神道碑銘 并序>.

10) 『春亭集』 卷12, 碑誌 <晉陽府院君河公神道碑銘 并序>.

위에서 알 수 있듯이 금강사는 하윤린이 ‘鄉之父老’, 즉 진주의 부로와 함께 조직한 결사체이다. 하윤린이 부로들과 함께 금강사를 결성한 시기는 1366(공민왕 15) 가을 무렵이다. 이때 하윤린의 나이는 46세이다. 그런데 과연 하윤린이 당대에 부로라고 지칭할 나이였던가.

좀 후대의 사실이지만 태종은 1410년 10월 사간원의 경연 참석을 권유받고서 경연에 나아가는 것이 비록 아름다운 일이나 내가 늙고 병이 있으므로 세자에게 참석을 권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sup>11)</sup> 그때 태종의 나이 44세였다.<sup>12)</sup> 그렇다면 46세의 하윤린이 당시 진주지역에서 부로로 대우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윤린이 금강사를 결성한 동기와 목적은 ‘하윤린의 신도비문’에서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다. 호정 하륜의 아버지 하윤린은 1344년(충목왕 즉위년)에 式目都監錄事로서 벼슬살이를 시작하였다. 1363년(공민왕 12) 朝奉郎으로서 知肅州郡事に 제수되었는데, 肅川都護府 명환조에 실릴 정도로 지방관으로서 치적이 높았던 인물이다.<sup>13)</sup> 1365년 지숙천군사의 임기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온 다음해에 진주의 부로들과 함께 금강사를 결성하였다.

하윤린은 지숙주군사로서 치적으로 인해 당상관에 올랐으며,<sup>14)</sup> 일찍이 添設官을 받고 누차 옮겨서 奉翊大夫 禮儀判書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종합하면 1366년 이후부터 1369년 이전에 봉익대부로서 예의판서를 지냈던 것으로 보인다.<sup>15)</sup> 하윤린이 벼슬살이에 다시 나아가는 것을 단념하게 된 계기는 1365년 가을에 하륜이 과거에 급제하여 이듬해 사관으

11) 『태종실록』 권20, 태종 10년 10월 29일(임술).

12) 이방원은 1367년 5월 16일 함흥 귀주 집에서 태어나 1422년 5월 10일에 세상을 떠났다. 『태종실록』 권1, <충서>.

13) 『春亭集』 卷12, 碑誌 <晉陽府院君河公神道碑銘 并序>; 『신증』 권52, 숙천도호부 名宦條.

14) 『신증』 권52, 숙천도호부 名宦條.

15) 1362년(공민왕 11) 예부를 禮儀司로 고치고 상서를 판서로 고쳤다가 1369년(공민왕 18)에 예부로 다시 칭하고 판서를 상서로 고쳤다.(『고려사』 권76, 백관지 禮曹條) 따라서 하윤린이 예의판서를 지낸 시기는 1366년 이후부터 1369년 사이에 해당한다.

로 벼슬살이를 시작한 것과 관련이 있다. 물론 하윤린이 1366년 이후 다시 벼슬살이에 나아가지 않은 것은 아니다. 지숙주군사로서 치적으로 인해 당상관의 봉익대부에 올라 예의판서를 지냈기 때문이다.

하윤린 자신이 첨설직으로 시작하여 당상관에 오르는 20여 년의 벼슬살이와 아들 하륜의 벼슬살이에 나아간 사실은 그가 고향으로 돌아와 다시 벼슬살이에 나아가는 것을 단념했다는 것은 금강사 결성의 동기이며, 부모들과 금강사를 결성하고 한가히 노닐면서 세월을 보내려고 했던 것은 금강사의 성격을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는 단서이다.

금강사의 용어에서 보면 불교적인 색채가 강한 결사체라는 생각이 든다. 당시 가장 널리 유통되고 신봉되던 대표적인 불경이 金剛經으로 알려져 있다. 12세기에 이르러 재상의 반열에 오른 인물이 금강경에 심취하여 스스로 호를 金剛居士라고 하였다.<sup>16)</sup> 그만큼 금강경이 문벌귀족과 지식층에 널리 영향을 미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단면이라 할 수 있다.

금강사 결성의 동기와 목적은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지만 그 성격이 과연 동기와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었는가를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금강사 결성의 사회적 배경으로는 13세기에 접어들면서 지방사회에서도 結社·結契 등의 명칭이 광범하게 사용되었던 것과 관련이 클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기존 불교계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한 결사운동이 중앙권력과 유착되면서 본래의 모습을 상실해 가자, 지방의 지식층들이 취한 방향은 불교계에서 떠나 성리학으로 접근하는 것이었다.<sup>17)</sup> 그렇다면 금강사는 재지사족 중심의 부로가 결사의 주체가 된 진주지역 지식층이 향촌사회의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나온 결사체였다.

향촌사회 내에서 당시 성리학이라는 새로운 사회이념이 수용되는 가운데, 매향이라는 전통적인 불교신앙에 입각한 공동체활동<sup>18)</sup>과 대비되는 재지사족이 주도한 새로운 향촌질서의 모색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금강사는 契會의 성격도 지니고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

16) 『고려사』 권95, 열전 李顥傳；『고려사』 권95, 열전 尹灌傳(附 尹彥頤).

17) 채웅석, 『高麗時代의 國家와 地方社會』, 서울대출판부, 2000, 309쪽.

18) 채웅석, 「여말선초 향촌사회의 변화와 埋香」, 『歷史學報』 173, 2002, 77-82쪽.

다. 부로의 성격에서 본다면 금강사의 성격은 사회변동기의 시대상황이 반영되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금강사는 진주의 부로들이 사회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결사체이면서 부모들 간에 우의와 신의를 다지고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契會를 성격도 지녔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진주지역에는 同邑의 부로끼리 우의를 다지는 모임이 널리 알려 지기도 했다. 소위 진주의 文士라고 일컬을 정도로 유교 지식인층이 형성되어 있었으며, 이들 간에 詩社도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1376년 봄에 全羅道元帥 河乙沘(1318-?)의 아버지이자 하윤린의 숙부인 河巨源(1301-?)이 76세에 득남을 하였다. 이에 同邑의 친숙한 벗인 재상 원정공 河楫(1303-1380)이 먼저 詩歌를 지어 그를 기념하였으며, 진주의 文士들이 모두 시가를 지어 장차 시가집을 편찬하려고 할 때 나주의 회진현에 유배살이 하던 정도전이 그 소식을 전라도원수 하윤지의 종사관 朴原賓으로부터 전해 듣고서 詩序를 지어 바쳤다.<sup>19)</sup> 비록 당시 시가집은 전하지 않지만 그 시서를 통해 진주지역 문사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이들 문사는 금강사 구성원과 크게 차이가 없을 것으로 짐작된다.

금강사가 결사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진주지역 향촌사회에서는 불교적 일상에서 유교적 일상으로 변화해 가는 과도기적 한 단면을 喪禮와 葬禮를 통해 엿볼 수 있다.

河楫은 贊成事로 치사하고 晉川君으로 봉해졌다가 세상을 떠났으므로 아들인 승려 元珪가 화장하였으며, 시호를 元正이라고 하였다.<sup>20)</sup> 하즙이 1380년 8월에 세상을 떠났는데, 이보다 4년 앞선 1376년 12월에 대사헌 하윤린이 세상을 떠났다.<sup>21)</sup> 불교식 의례에 의거하여 하즙의 장례를 치른 것은 아들인 승려 원규가 주관하였던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 이러한 반면에 喪葬의 의례가 주자의 가례에 의거한 경우도 있었다. 1380년 9월 하윤린이 順興 임지에서 세상을 떠났다. 이때 모든 喪葬의 用具는 일체 주자의 가례에 의거하고 불교의 법식을 쓰지 않았다.<sup>22)</sup> 이처럼

19) 『三峯集』 卷3, 序 <賀河公生子詩序【按河公乙沘之大人 丙辰】>.

20) 『고려사』 권112, 열전 河允源傳.

21) 『고려사』 권112, 열전 河允源傳 ; 『思軒遺集』 卷2, 雜著 <餘沙先莊事實>.

여말선초 진주지역 향촌사회의 일상의 변화는 부로의 존재와 성격의 한 단면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금강사는 진양하씨 시랑공과 河湜의 두 아들 하시원과 하거원 형제 가문의 자손과 진양하씨 사직공과 河楫의 내외자손·진양강씨 姜君寶 자손 및 진양정씨 鄭臣重 가문이 주축을 이루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하윤린이 다시 벼슬살이에 나아간 이후에도 반드시 금강사가 아닐지라도 그들 가문 자손의 공동체활동의 한 형태로서 지속되고 있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곳이 長者院이다.

長者院은 梅川 河有宗(?-?)이 1388년에 개경원 이웃 있던 아버지 하윤원이 거처하던 고향집 곁에 열었던 院이었다. 하유종은 왕래하면서 들쭉하고 사색하는 정자를 세운 뜻을 본받고자 한 것에 그 개설의 우선 목적을 두었으며, 또한 여행객이 유숙하는 데에 편의를 제공하려는 뜻도 있었다. 1379년 왜구의 침구로 개경원 이웃의 하유종의 옛집과 개경원이 모두 소실되었기 때문이다. 경산목사 하유종은 옛집과 개경원을 대신할 원을 열기 위해 자재를 모았으나 1384년 진주목사 박자안의 요청을 받아들여 그 자재를 개경원의 중건에 모두 받쳤다.<sup>23)</sup>

하유종은 다시 재력과 재물을 갖추어 1388년에 장자원을 열었다. 왜 하필이면 장자원을 지었다고 하지 않고 열었다고 했을까. 장자원은 사적인 공간이지만 실제 개방적인 공간으로서 기능을 염두에 두었으므로 한 원을 열었다고 했을 것이다. 장자원은 개경원의 중건 이후에 개설되었으므로 여행객에게 유숙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보다 오히려 장자들을 위한 교류와 유숙을 위해 열었던 한 원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시의 재상들은 시로 초대하여 바둑으로 날을 보내면서 다투어 盛饌을 차려 호사함에 힘썼다.<sup>24)</sup> 이 사실에 빗대어 보면 하유종은 장자원을 열어 교류의 장소로 활용하였을 것이다. 재상 가문의 장손인 경산목사 하유종이

22) 『春亭集』 卷12, <晉陽府院君河公神道碑銘 并序>.

23) 『신증』 권30, 진주목 역원조 ; 『교은집』 하, 기 <晉州開慶院記> ; 『약헌집』 권6, 기 <慶流齋重建記>.

24) 『용재총화』 권3, <鐵城崔瑩>.

장자들을 위해 개설한 원이라면 그 장자들은 자신의 가문과 인적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는 사회적 지위를 갖춘 재지사족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앞의 금강사 구성원인 부모와 장자는 정치·사회적으로 인적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는 가문 출신의 인물들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장자원의 장자는 금강사를 결사한 부모와 직·간접의 인적 관계망을 구축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장자로 추정되는 인물은 진양하씨 司直公派 하유종·河自宗(1350-1433)·河啓宗(?-?) 형제, 진양하씨 侍郎公派 하륜·하륜의 종형제 河遊·하륜의 재종형제 河濂과 河丞海 등이며, 진양강씨 博士公派 恭穆公 姜蕃(1339-1400)와 좌의정 姜筮(1347-1424) 형제 및 강시의 장자 姜淮伯(1357-1402)·姜淮仲(?-1421)·姜淮季(?-1392) 형제 등, 진양강씨 殷列公派 開城留守 姜壽明(?-?), 진양정씨 郊隱 鄭以棼(1347-1434)·鄭從棼 등이었을 것이다.

### Ⅲ. 부모의 인적 관계망과 변화

고려 말기 진주지역 부모의 주요 구성원으로 생각되는 하윤린의 진양하씨 시랑공파 가문 출신의 인적 관계망을 먼저 살펴보자.

진양하씨 侍郎公派 하윤린 가문은 그의 조부 河湜(?-?)이 徵仕郎 膳官 署丞을, 그의 외조부 진양정씨 鄭均(?-?)이 承奉郎 豐儲倉副使를 지냈다. 하식은 증손 하륜이 귀하게 되어 ‘純忠補祚功臣輔國崇祿大夫判司平府事 晉原君’으로 추증되었다.<sup>25)</sup> 그의 두 아들 河侍源(?-1360)과 河巨源(1301-?) 형제가 활동한 연대는 14세기 중·후반대일 것이다. 하윤린의 숙부 하거원은 1376년까지 건강하였으므로 1366년에 금강사를 결사할 때 참여한 부모의 핵심 인물로 추정된다. 1416년 하윤린의 신도비를 세울 때 知製敎 朴熙中은 좌의정 하륜의 명을 받아 하윤린의 신도비문을

25) 『春亭集』 卷12, <晉陽府院君河公神道碑銘 并序>; 『동문선』 권129, 묘지명 <諡文忠 河公墓誌銘 并序[尹淮]>.

쓰고 碑陰記도 지었는데, 그가 당대에 글씨로써 이름이 높았기 때문이다.

하시원은 두 아들 하윤린·河允丘를 두었으며, 하거원은 河乙沚(1318-?)·河乙淑·河乙桴 등 여섯 아들과 사위 둘을 두었다. 또한 하거원은 딸 한 명과 1376년에 얻은 아들 한 명을 더 두어 모두 일곱 아들과 사위 셋을 두었다.<sup>26)</sup> 하시원과 하거원 형제의 가문은 그들 아들대에 이르러 族勢가 크게 번창하고 정치적 성장을 거듭하여 하을지가 재상의 반열에 올랐다.

하윤린은 지숙주군사로서 치적이 매우 뚜렷했다. 『신증』 肅川都護府의 名宦條에는 “하윤린은 공민왕 때 知郡이다. 僞王 多帖木兒가 침입했을 때 諸道の 군사와 장수들이 왕래할 때 모두 肅州를 경유하였는데, 하윤린은 대접하기에 소홀함이 없었다. 정치를 하는데 어진 것과 용서하는 것으로 근본을 삼아서 세금 외에는 거두는 것이 없어지고 형벌이 줄어들더니, 아전과 백성들이 그 은혜를 입었고, 당상관에 올랐다.”라고 나온다. 다산 정약용은 『牧民心書』 禮典 賓客 편에서 다시 그 내용을 언급하였다. 이는 하윤린이 수령으로서 빈객 접대와 선정을 펼쳤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리고 長者 姜承裕(?-?)가 자신의 딸을 하윤린의 아내로 삼게 하고, 하윤린이 아버지처럼 섬겼다는 사실에 비추어보면 진양강씨 강승유 가문도 진주의 재지세력으로서 상당한 부를 소유하고 사회적 위상이 확고하던 가문이었던 것 같다. 하윤린은 강승유의 딸 사이에 호정 하륜과 사위 전주류씨 柳克愬(?-1388)를 두었다.

하윤린의 종형제 하을지는 원간섭기 말기에서 우왕 초반까지 하거원 집안의 정치·사회적 위상을 잘 보여주는 인물이다. 『及菴詩集』·『고려사』 세가와 선거지·『목은집』·『삼봉집』·『경재집』 등에 의하면 하을지는 진주 향교에서 공부하다가 어느 때에 개경의 及菴 閔思平(1295-1359)의 문하생이 되었다. 급암의 큰 기대를 받은 하을지는 1342년(충혜왕 복위3)에 급암이 주관한 국가감시에 합격하였으며, 1344년(충목왕 즉위년) 11월에 지공거 朴忠佐(1287-1349)와 동지공거 李蒞이 주관한 과거

26) 『浩亭集(初刊本)』 卷3, 附錄 <晉陽府院君河公諱允濟神道碑 陰記[知製教朴熙中]>.

에 장원 급제하여 벼슬살이에 나아갔다. 하을지는 내직으로 밀직사사로서 재상의 반열에 올랐으나 주로 將相으로 활동하였으며, 뒤에 靑川君에 봉해졌다. 河乙淑(?-?)은 아들 河濂과 사위 鄭巨重(1327-1380)·鄭新德 등을 두었는데, 정신중의 아들이 교은 정이오이다. 하을지의 둘째 동생 하을부(?-?)는 1320년대에 태어나 하을지가 장상으로서 활동하던 1370년대에 判軍器監事를 지냈을 것이다. 하을부의 손자가 襄靖公 河敬復(1377-1438)과 목사 河敬履(?-?)이다. 하을지를 포함해 7형제 가운데 하을지·하을숙·하을부 등도 금강사의 구성원으로 추정된다.

진양하씨 司直公派는 고려시대부터 15세기 초반대까지 진주 서면 餘沙村에 대대로 살았던 가문으로서 河楫(1303-1380)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중앙으로 진출하였다.<sup>27)</sup> 하즙이 크게 출세했던 배경으로서 고성이씨의 정치·사회적 기반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그의 처부는 고성이씨 鐵原郡 李珣인데, 이우가 진주목사로 재임하면서 하즙을 사위로 삼았던 것으로 보인다. 고성이씨는 이우의 아버지 李尊庇(1233-1286)가 1260년 과거에 급제하여 지밀직사사·世子元賓에 올라 知貢擧를 지내고 監察大夫와 判密直司事에 올랐을 만큼 정치적 입지가 확고한 가문이었다.

하즙의 처부 이우는 진주목사로 있으면서 선정을 베풀어 『신증』 진주목의 명환조에 올랐던 인물로서 아들이 鐵城府院君 文貞公 杏村 李嶽(1297-1364)과 桃村 李嶠이다. 하즙은 대사헌에 오르고 晉山君에 봉해진 하운원(1322-1376)과 승려 원규를 두었으며, 사위가 開城留守 姜壽明(?-?)과 恭穆公 姜蓍(1339-1400)이다. 하즙의 손자가 河有宗(?-?)·河自宗(1350-1433)·河啓宗(?-?)이며, 증손이 영의정 河演(1376-1453)·대사간 河潔 등이다. 위와 같은 인물의 활동 시기를 감안하면 진양하씨 사직공파 가문의 하즙과 아들 하운원과 사위 강수명과 강시 등은 금강사 결사를 주도한 하운린과 인적 관계망을 형성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진양강씨 博士公派는 文敬公 姜君寶(1312?-1380)의 고조 國子博士

27) 『思軒遺集』 卷2, 雜著 <餘沙先莊事實>.

姜啓庸을 파조로 한다. 강계용은 아들 殿中內給事 姜引文과 함께 모두 儒業으로 현달하였으나 손자 姜師瞻과 증손 姜昌貴(?-1360)에 이르러 벼슬살이에 나아가지 못했다. 雙梅堂 李詹(1345-1405)이 지은 <姜政堂 母氏合葬祭文>에 의하면 문경공 강군보의 아버지 강창귀는 1360년에 세상을 떠났으며, 정당문학 강군보의 어머니 永嘉郡夫人 權氏(1293-1378)는 1378년 86세로 세상을 떠났다. 영가군부인권씨는 安東權氏 僕射公派 中門祇候 權允保의 딸이다. 증문지후 권윤보는 安東權氏 僕射公派 派祖 權守洪의 셋째 손자이다. 陽村 權近(1352-1409)은 권수홍의 형님 樞密公派 派祖 權守平(?-1250)의 6대손이다.<sup>28)</sup> 그래서 권근은 문목공 강시의 묘비문을 지어달라는 통정의 부탁을 받고서 “나는 먼 친척으로 공의 부자를 안 지 오래므로 의리상 사양할 수 없었다.”라고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혼맥에서 보면 진양강씨 박사공과는 비록 강창귀의 아버지 姜師瞻이 중앙의 벼슬살이 나아가지 못했지만 조부와 증조부가 중앙에서 벼슬살이 한 후광을 바탕으로 안동권씨 북야공과의 파조 권수홍의 증손서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

진양강씨 박사공과 가문이 다시 중앙 관계로 진출한 것은 강군보대에 이르러서다. 강군보는 진주향교에서 배우고 과거에 올라 벼슬이 簽書密直司事·정당문학 등 재상의 반열에 올랐으며, 시호가 文敬이다.<sup>29)</sup> 이 책은 문경공 강군보의 죽음을 애도한 輓詞 가운데 ‘만년에 정당에 제수되며 식읍을 또 받으신 분’이라고 하였다.<sup>30)</sup>

강시의 묘지명·『세종실록』·『신증』의 진주목 인물조를 참고하면 강군보는 典客令 金呂珍의 딸 사이에 恭穆公 姜蕃(1339-1400)와 좌의정 姜筮(1347-1424)를 두었다. 강시는 1357년(공민왕 6) 성균관시에 급제하여 여러 벼슬을 거쳐 奉善大夫 知陝州事로 있을 때 행촌 이암이 원나

28) 『고려사』 권102, 열전 權守平傳.

29) 『敬齋集』卷2, 記 <晉州鄉校四教堂記>; 『牧隱文藁』卷14, 碑銘 <廣通普濟禪寺碑銘并序>; 『雙梅堂篋藏集』卷24, 文類 <姜政堂母氏合葬祭文>; 『陽村集』卷39, 墓誌類 <有明朝鮮國贈諡恭穆姜公墓誌銘并序>; 『세종실록』 권26, 세종 6년 10월 19일(경신); 『신증』 권30, 진주목, 인물조.

30) 『牧隱詩藁』卷28, 詩 <哭姜政堂【君輔】>. “晚拜政堂封食邑.”

라에서 가져온 『農桑輯要』를 관각하여 각 군에 보급했다.<sup>31)</sup> 이처럼 강시는 선진적인 강남농법의 도입에 앞장섰던 인물이다. 강시는 版圖判書·門下評理商議를 거쳐 1383년 겨울에 晉山君에 봉해지고 품계가 중 1품의 重大匡에 올랐으며, 1390년 겨울에 推忠補祚功臣으로서 門下贊成事に 제수되었다. 강시는 원정공 하즙의 딸 사이에 아들 강희백·姜淮仲·姜淮順·姜淮叔·공양왕의 둘째 사위 姜淮季를 두었으며, 좌의정으로 치사한 강서는 아들 姜壽를 두었다.<sup>32)</sup>

진양정씨 鄭藝 계열은 勉齋 鄭乙輔(1285-1355)의 아버지 鄭椽(?-1326) 대에 이르러 중앙의 실직으로 진출하였다.<sup>33)</sup> 『세종실록지리지』 연안도호부와 『延安府誌』 연안 선생안에 의하면 정연은 1307년에 知碩州事로 부임하여 1308년에 이임하였다. 정연의 아들 정을보는 1320년(충숙왕 7) 8월에 右代言 許富가 관장한 舉子試에 장원으로 급제했으며, 1343년(충혜왕 후3년) 11월에 정당문학으로서 田民推刷都監의 提調에 제수되었다. 1352년(공민왕 1) 8월에 菁川君에 봉해지고 찬성사에 올랐으며, 돌아가자 文良의 시호가 내려졌다.<sup>34)</sup>

정을보는 아들 鄭天德(1308-1366)과 딸 贈辰韓國夫人鄭氏(1346-1395)를 두었는데, 사위가 順天朴氏 朴可興이며, 외손이 文肅公 朴錫命(1370-1406)이다. 정천덕의 아들이자 하을숙의 사위 정신중은 세 아들 정이오·鄭從吾·鄭省품을 두었다. 정이오는 호가 교은, 시호가 文定이다. 그는 이색과 정몽주의 문하에게 배워 1374년(공민왕 23) 과거에 급

31) 『목은문고』 권9, 서 <農桑輯要後序>.

32) 『陽村集』 卷39, 墓誌類 <有明朝鮮國贈諡恭穆姜公墓誌銘 并序>; 『세종실록』 권26, 세종 6년 10월 19일(경신).

33) 이동희는 진양정씨 정에 계열의 정분 가계가 여말선초에 성장한 신흥세력으로 생각된다고 했다.(李東熙, 「朝鮮初期 官人層 研究 - 高麗와 朝鮮 支配勢力間의 關係 규명의 일환으로 -」, 『國史館論叢』 72, 1996, 32쪽) 이는 본문에서 살펴보았듯이 올바른 이해라고 볼 수 없다. 특히 『신증』 진주목 인물조에 근거하여 정을보의 관직을 贈工部侍郎이라고 본 것은 대표적인 오류이다.

34) 『고려사절요』 권24, 충숙왕 7년 8월조; 『고려사절요』 권25, 충혜왕(後) 4년 11월조; 『고려사절요』 권26, 공민왕 원년 10월조; 『陽村集』 卷40, 墓誌 <有明朝鮮國贈辰韓國夫人鄭氏墓誌銘 并序>.

제하고 벼슬살이에 나아갔는데, 예문관대제학·의정부찬성사 등을 지냈다. 정이오의 아들이 右議政 鄭萊(1382-1454)이다.<sup>35)</sup> 이처럼 원간섭기에 재상의 반열에 오른 정을보 가문은 외손 박석명과 증손 정이오도 모두 재상의 반열에 올랐을 정도로 여말선초의 대표적인 진주지역 사족 가문이다. 정신중은 실직을 지낸 것으로 보이지 않으나 진주지역 향촌사회의 주도적 가문 출신으로서 부로로 대우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고려말 진주지역 금강사의 구성원인 부로는 그들 간에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향촌사회의 변화를 주도했던 인물들로 추정된다. 그러면 그들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 것인가. 진주지역의 사회 변화와 지식 재생산의 과정은 13세기가 하나의 전환기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 외적인 계기는 외향이 진주인 최충현의 집권이였다. 그가 집권함으로써 그의 외가 진주류씨만이 아니라 진주 토성 하씨·강씨·정씨도 중앙에 활발히 진출하였다.<sup>36)</sup> 이러한 외적인 조건은 진주지역의 내적인 지식층 성장과 맞물려 14세기에 이르러 재지세력의 급격한 정치적 성장을 촉진하였을 것이다. 향교는 진주지역의 지식층 성장에서 주목되는 공간이었다.

진주향교는 일찍부터 진주지역의 지적 기반과 지식 재생산의 중심 장소였다. 敬齋 河演(1376-1453)이 1449년에 지은 <晉州鄉校四教堂記>에 의하면 殷烈公 姜民瞻(963-1021), 文敬公 姜君寶(1312?-1380), 어사대부 河允源(1322-1376), 菁川君 河乙沚(1318-?), 參贊 鄭乙輔(1285-1355), 文忠公 河崙(1347-1416), 文正公 鄭以吾(1347-1433), 養正公 河敬復(1377-1438)은 모두 진주향교에서 공부한 뛰어난 인물로서 문무로서 모두 당시에 업적을 크게 남겼다. 이들은 부로의 인적 관계망의 핵심 가문의 인물이다.

금강사의 구성원인 부로의 인적 관계망의 성격과 관련한 ‘晉之文士’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잠시 언급했듯이 1376년 봄에 정도전은 全羅道元帥 河乙沚의 아버지 河巨源(1301-?)이 76세에 아들을 얻은 것을

35) 『세종실록』 권65, 세종 16년 8월 11일(을묘); 『豐墅集』 卷13, 墓碣 <右議政鄭公墓碣銘>.

36) 李樹健, 『韓國中世社會史研究』, 一潮閣, 1984, 309-310쪽.

축하하는 詩序인 <賀河公生子詩序>를 지었다. 정도전은 그 서문에서 “하공의 從事官 朴原賓이 도전에게 이르기를 ‘하공의 尊大人이 나이 18세에 하공을 낳아, 하공이 지금 將相의 위에 올랐는데도, 존대인께서는 강건하여 아무 병이 없이 나이 76세에 또 아들을 낳았습니다. 같은 읍의 친숙한 벗인 河公(河楫)이 먼저 詩歌를 지어 그를 기념하였으며, 진주의 文士들이 모두 그를 노래하였는데 그대는 알고 있는가?’라고 하였습니다.”라면서 진주 문사들의 존재를 전언하였다. 그리고 정도전은 <賀河公生子詩序>에서 ‘진주의 문사’들이 하거원의 득남을 축하하는 시가 하나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을 안다면서 하을지 가문이 장상의 지위에 오르고 부귀를 누리는 것이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하였다.

이상과 같이 13세기 이후 대내외적 배경을 바탕으로 진주지역에는 文士로 일컬어질 수 있는 지식층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었다. 1376년 시가 집을 편찬하던 문사들의 대부분은 하윤린과 부로가 함께 결성한 금강사의 구성원들과 인적 관계망에서 거의 대부분 겹치는 인물들일 것이다. 이들은 서서히 성리학에 대한 지식을 늘려가면서 새로운 향촌질서를 모색하고 있던 지식층이었으며, 토성 가문 출신의 사족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었다.

여말선초의 사회변동을 겪으면서 그러한 진주지역 사족 가문의 구성과 부로의 인적 관계망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일어났다. 그러한 변화는 축석루 중건을 주도한 前判典醫監事 姜順과 前左司諫大夫 崔卜麟 가문 등등의 인적 관계망을 통해 어느 정도 드러날 것으로 본다.

진주지역의 부로 강순과 최복린 등이 여러 부로들과 함께 축석루 중건을 의결하였다는 사실은 사실상 진주지역 사족 가문 출신의 부로들이 대부분 의결에 참여하였음을 말해준다. 당시 부로들은 강순·최복린 등의 인물과 ‘諸父老’라는 통칭의 부로들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리고 진주의 부로들을 대표하는 강순과 최복린도 성격에서 차이가 있다.

강순(?-?)은 조선초 진주지역의 부로들을 대표하지만 본관을 제외하면 가계와 생애에 대해 알려진 게 거의 없다. 다만 축석루 중건 관련 사실과 조선에 들어와 判典醫監事를 지냈다는 점과 사위가 慶州鄭氏 鄭其

(1380-1425)라는 정도이다. 그렇더라도 그의 사위 정기를 통해 그의 인적 관계망과 사회적 위상을 추정할 수 있다.

정기는 진양하씨 사직공파 하운원의 외손이다. 그의 아버지 鄭璉은 中顯大夫로서 典客승을 지냈으며, 하운원의 딸 사이에 사헌부지평 정기를 두었다.<sup>37)</sup> 정진이 松京에서 진주로 이주해 왔다고 전하는 자료가 있다.<sup>38)</sup> 하지만 정진의 아들 정기가 외향 진주에 완전히 정착한 것으로 보인다. 정기는 벼슬살이에 나아가 사헌부지평과 호조정랑을 지내고 세상을 떠났는데, 진주목 淸山의 三寶谷에 묻혔다.<sup>39)</sup>

정기의 처 진양강씨(1374-1455)의 묘소는 원정공 하즙과 대사헌 하운원의 묘소 아래에 위치한다.<sup>40)</sup> 진양하씨 사직공파는 한동안 진주를 떠나 있으면서 두 묘소도 관리가 되지 않아 조선 중기 접어들면서 잠시 잊어버렸다가 외손부 진양강씨 묘의 鐫石文으로 인해 하즙과 하운원의 묘소를 확인할 수 있었다.<sup>41)</sup> 이는 하운원의 외손 정기가 진주 외가의 묘소를 한동안 관리를 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정기는 진양강씨 사이에 다섯 아들 鄭次溫(1399-1467)·鄭次良·鄭次恭·鄭次儉·鄭次讓을 두었다. 정기의 손서 전의이씨 李槿은 사헌부감찰을 지냈는데, 전의이씨 진주 입향조 경상우도절제사 李承幹의 손자이자 하륜의 외증손이다. 이진은 남명 조식의 자형인 李公亮의 祖父이고, 병조판서 李俊民(1524-1590)의 증조부이다.<sup>42)</sup> 이렇듯 강순은 자신의 사회적 기반 이외에 사위 정기를 통해 진양하씨 사직공파와 사회적 관계망을 구축하고 있었으므로 중앙과 진주지역에서 명망을 유지하던 인물로 생각된다.

37) 『교은집』 권하, 묘지 <贈奉列大夫漢城少尹行司憲府持平戶曹正郎鄭公其墓誌銘>.

38) 『棲山集』 卷5, 墓表 <處士慶州鄭公墓表>.

39) 『교은집』 권하, 묘지 <贈奉列大夫漢城少尹行司憲府持平戶曹正郎鄭公其墓誌銘>; 『雪嶽集』 卷4, 行狀 <持平鄭公行狀>; 『慶州鄭氏平章公派世譜』.

40) 『雪嶽集』 卷4, 行狀 <持平鄭公行狀>.

41) 『晉山世稿』 『養正齋遺稿』, 詩 <猪洞改莎時 并小序>.

42) 『新菴集』 全義李氏家乘卷圖, <繕工監參奉贈資憲大夫吏曹判書兼知義禁府事全義李公諱公亮墓碣>.

최복린(1349-1431)은 1374년(우왕 즉위년)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살이에 나아가 함안교수를 지냈는데, 松堂 趙浚(1346-1405)이 同年의 최복린을 함안교수로 보내며 모자를 얻었다는 시가 전한다.<sup>43)</sup> 그리고 1383년(우왕 9)에 固城郡事로 있으면서 왕명을 받들어 按廉使 呂克珣과 함께 江城君 文益漸의 효행을 정려하는 비를 세웠다.<sup>44)</sup> 그는 하륜의 천거를 통해 左司諫大夫를 지냈다.<sup>45)</sup>

좌사간 최복린의 행적은 그 외에 크게 드러나고 전하는 것이 없지만 그의 인적 관계망에서 조준과 하륜이 주목된다. 그들은 당대 최고 권력자의 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는 泗川姜氏 전객령 姜得封의 딸 사이에 함안군수·사헌부지평을 지낸 浩然 崔道源(1373-1441)을 두었다.<sup>46)</sup> 최복린이 언제 진주에 정착했는가를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으나 이미 1413년의 시점에 하륜과 동향이라고 했다.<sup>47)</sup> 그는 아버지 司設署丞 崔守明과 어머니 진강정씨 判典客寺事 鄭子權의 딸 사이에 태어났다.<sup>48)</sup> 진강은 진주의 별호이므로 진강정씨는 진양정씨를 달리 이른 것이다. 아마도 그는 외향 진주로 이주한 것으로 보인다. 그 시기는 여말선초일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진주로 입향하여 진주목 동면 조동리에 거주하다가 그곳에 묻혔다.<sup>49)</sup> 그가 진주지역 향촌사회에서 사회적 명망을 갖게 된 것은 과거 급제자로서 벼슬살이만이 아니라 하륜과 조준 등 그의 인적 관계망에서 비롯했을 것으로 보인다.

강순과 최복린 등과 함께 ‘諸父老’로 통칭되던 구체적 인물이 확연히 드러나지 않지만 진양하씨와 진양강씨 및 진양정씨 가문의 인물이 태반

43) 『松塘集』 卷2, 五言古詩 <送同年崔【卜麟】教授咸安 得冒字>.

44) 『江城錄』 事實, <神道碑文【碑閣在丹城新安里路傍】>; 『聯芳輯錄』 『默翁集』 卷1, 記 <江城君文公【益漸】孝子碑閣重建記>.

45) 『태종실록』 권26, 태종 13년 12월 27일(임신).

46) 『朔寧崔氏大譜』 朔寧崔氏世系, <大司諫公墓表[崔秉默]>; 『剛齋集』 卷9, 墓表 <持平崔公墓表>.

47) 『태종실록』 권26, 태종 13년 12월 27일(임신).

48) 『朔寧崔氏世譜』 朔寧崔氏世系, <大司諫公墓表[崔秉默]>.

49) 『진양지』 권4, 문과조; 『東城勝覽』 卷2, 人物條.

을 차지했을 것이다. 특히 知昌寧縣事을 지낸 통정 강희백의 둘째 아들 姜友德(1385-1439)은 載寧李氏 知甫州事 李惠(?-?)의 딸에게 장가들어 姜孟卿(1410-1461)과 姜叔卿(1428-1481) 형제를 두었다. 강우덕의 장인 이해는 밀양 읍치 서쪽의 召音里<sup>50)</sup>에서 진주목 동면 동산리로 옮겨와 살았는데, 선초 진주의 부로를 대표하는 인물에 들어갔을 것으로 추정된다.

재령이씨 이해는 생몰년이 밝혀져 있지 않으나 사돈지간인 통정 강희백(1357-1402)과 시를 주고받으면서 교류했던 춘정 변계량(1369-1430)과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지보주사로서 치적을 남겨 보주(예천)의 명환조에 등재되었다. 그는 시로써 유명하였으며, 『단활집』 한 짝을 남겼으나 전하지 않는다.<sup>51)</sup>

이해는 중랑장 李日祥의 둘째 아들이고, 그의 숙부 사재령 李日善은 이성계 일파에게 제거당한 사헌부지평 李申·불사이군으로 유명한 함안 山翼里 茅谷村의 茅隱 李午·사위 河之溟 등을 두었다. 이신은 강희백과 정치적 뜻을 같이 하였으며, 1392년 4월 강희백 등과 함께 이성계 일파에게 제거되었다.<sup>52)</sup> 이일선의 사위 진양하씨 시랑공과 하지명은 호조좌랑과 초계군수를 지냈다. 하지명은 아버지가 檢校漢城判尹 河遊(?-?)이며, 당숙이 영의정 하륜이다.<sup>53)</sup> 따라서 이해는 진양강씨 강희백 가문과 정치적 지향이 같았으며, 사회적으로 진양강씨 박사공과 가문, 진양하씨 시랑공과 가문과 혼맥을 통해 인적 관계망을 형성하고 있었다. 이는 이

50) 재령이씨 中郎將 李日祥과 司宰令 李日善 형제 가문은 밀양의 읍치 서쪽 召音里에 세거하다가 이일선의 둘째 아들 이해는 진주 동산리로, 이일선의 넷째 아들 모은이오는 함안 산익리 모곡촌으로 이주하였다. (『茅村集』 卷2, 家狀 <伯五代祖溪隱府君家狀>; 『茅溪集』 卷5, 行狀 <家世行錄畧>)

51) 『신증』 권24, 예천군 명환조; 『해동잡록』 권3, 변계량전; 『연려실기술 별집』 권14, 文藝典故 <文集>.

52) 『고려사』 권46, 세가 공양왕 4년 4월 4일조; 『고려사절요』 권35, 공양왕 4년 4월조; 『茅村集』 卷2, 家狀 <伯五代祖溪隱府君家狀>

53) 『태종실록』 권29, 태종 15년 5월 4일(경자); 『태종실록』 권29, 태종 15년 6월 19일(갑신); 『浩亭集(初刊本)』 卷3, 附錄 <晉陽府院君河公諱允濬神道碑 陰記[知製教朴熙中]>; <謙齋集』 卷8, 行狀 <松亭先生河公行狀>.

혜가 진주로 이주하고, 선조 진주에서 부로로서 주요한 위치를 차지했던 사회적 배경이었다.

친양하씨 시랑공파 河遊는 검교한성판윤의 산직을 지냈다. 하유의 아버지는 하윤린의 아우 하윤구이며, 조부가 하시원이다. 檢校漢城判尹을 지낸 가선대부 河遊는 진양정씨 副正 鄭公富의 딸 사이에 네 아들 漢城小尹 河之混(?-?)·延山府使 河之沍(1365-1427)·초계군수 河之溟(?-?)·豐儲倉主簿 河之滄(?-?)과 사위 閔綬를 두었다. 초계군수 하지명은 김해하씨 郎將 許承孺의 딸 사이에 아들 세 아들 河現·河備·河蓍과 두 사위 柳蒔(1404-1469<sup>54</sup>)와 南致和를 두었다. 司醞署直長 하현은 松亭 河受一(1553-1612)의 5대조이다. 영해부사 류시의 사위 가운데 文貞公 許琛(1444-1505)은 우의정을 지내고 좌의정에 오른 인물이다.<sup>55)</sup>

하유의 아들 연산부사 하지돈은 진주지역의 부로에 포함되었을 것이며, 이외 하지돈의 형제를 비롯해 시랑공파의 적지 않은 인물들이 부로에 포함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생몰년 미상이어서 확정할 수 없다.

한편 전혀 행적이 드러나지 않지만 하륜의 <봉명루기>에 나오는 前尙州牧事 全悌(?-?)와 같은 인물도 진주지역에 정착하여 봉명루가 중수되는 1410년 무렵에 고을 사람이라고 칭해지고 있었다. 嶺牧使 崔迤(1356-1426)가 봉명루를 중수하고서 고을 사람 전 상주목사 전제에게 부탁하여 하륜에게 기문을 청하였다.<sup>56)</sup> 아마도 전제도 부로에 포함되었을 것이다.

---

54) <경상남도 문화재지정 보고서>에는 류시의 몰년을 1471년이라고 하였으나 오류라고 생각된다. 류시의 묘비문에 의하면 류시는 ‘己丑六月二十日’에 영해의 관아에서 졸하고 나이 66세였다. 따라서 『晉州柳氏世譜』의 몰년 1469년이 옳다.

55) 『謙齋集』 卷8, 行狀 <松亭先生河公行狀>; 『晉陽河氏大同譜』 권1, <자손록>; 『晉州柳氏世譜』; 『慕齋集』 卷14, 行狀 <許文貞公行狀>.

56) 『東文選』 권81, 記, <鳳鳴樓記[河崙]>.

#### IV. 축석루 중건과 부로

축석루 중건의 주도세력으로서 부로의 존재는 여말선초 진주지역의 사회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경상도지리지』 진주도·『세종실록지리지』 진주목의 토성조와 『신증』 진주목 인물조에 언급된 토성 가문 출신 인물들은 여말선초 진주지역 재지세력의 재편과정과 성격을 오롯이 반영한 사회 변화의 실체라고 생각되지 않기 때문이다.

먼저 축석루 중건의 사정을 이해하기 위해 그 창건과 1413년 중건 이전의 상황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고증할 필요가 있다.<sup>57)</sup> 羸石樓는 壯元樓라고도 불렸다. 하륜은 그 둘의 명칭에 대한 뜻은 淡庵 白文寶(1303-1374)의 기록이 있다면서 그 대략의 내용을 <축석루기>에서 “강 가운데 뾰족뾰족한 돌이 있는 까닭으로 누를 짓고는 이름을 羸石이라 했다. 김공의 손으로 시작되고 安常軒이 다시 지었는데 모두 장원급제한 이들이다. 이 때문에 축석과 장원이란 두 명칭이 생겼다.”라고 전했다. 따라서 축석루는 누각이 위치하는 지형에서 비롯하여 지은 이름이고, 장원루는 누각을 창건한 金之岱(1190-1266)와 재건한 安震(?-1360)이 모두 장원 급제한 인물이라 하여 지은 이름이다.

축석루 창건 시기는 1240년설이 있지만 1241년(고종 28)으로 보는 게 옳다. 김지대는 1240년에 全羅道按察使로 있었고, 1243년 1월에 秘書少監으로서 몽고에 방물을 바쳤다.<sup>58)</sup> 그는 그 사이에 진주목사로 재임했다. 그가 崔滋(1188-1260)에게 보낸 시에서 “작년(1241) 강루에서 나를 전송하더니 금년(1242)에 당신 또한 수령으로 왔구려.”라는 내용이 나오고, 『동문선』 권18, 칠언배율 <寄尙州牧伯崔學士滋[金之岱]> 최자가 1242년에 상주목사로 있었다.<sup>59)</sup> 따라서 목사 김지대가 1241년에 龍頭寺 남쪽 돌벼랑 위에 있던 절의 小樓를 헐어내고 축석루를 창건했

57) 축석루 중건 시기에 대해 1412년이라는 본 것은 오류이다.(채용석, 앞의 논문, 81쪽)  
하륜이 지은 <축석루기>에는 1413년에 중건된 사실이 명확히 나온다.

58) 『고려사절요』 권16, 고종 27년조 ; 『고려사』 권23, 고종 30년 춘정월조.

59) 『신증』 상주목 산천조.

던 것으로 추정된다.

1322년(충숙왕 9) 안진이 축석루를 재건하였다. 하륜이 소년 시절에 여러 번 올라가 보았던 축석루는 1379년에 왜구의 侵寇로 불타고 말았다.<sup>60)</sup> 이후 축석루는 한동안 재건되지 못했다. 여말선초 정치·사회·경제적 조건이 여의치 않았기 때문이다. 이것은 하륜이 축석루 기문에서 “(임금은) 자주 교서를 내려 民力を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므로 수령이 農桑이나 학교에 관계되는 일을 제외하고 한 가지 役事도 감히 자의로 일으키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한 내용에서 잘 알 수 있다. 1379년 이후 축석루는 중건되지 못하고 1412년에 이르렀던 것이다. 따라서 목사 金仲光이 別駕 李思忠과 함께 비로소 진주성을 쌓고 축석루를 지었으며, 이후 연이어 焚蕩되었다거나<sup>61)</sup> 1379년(우왕 5)에 두 사람이 축성하고 축석루를 중건하였다는 설은 오류이다.<sup>62)</sup>

1413년 축석루 중건의 주도세력은 진주지역의 부로들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다음의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을의 부로 前判事 姜順과 前司諫 崔卜麟 등이 諸父老와 같이 의논하기를 “龍頭寺는 읍을 창설하던 초기부터 相地 곳으로서 축석루를 설치하여 한 지방의 승경이 되었다. 옛사람이 그로써 사신과 빈객의 마음을 유쾌하게 하여 和氣를 불렀고 그 혜택이 고을 백성에게 미쳤던 것인데, 폐한 지가 이미 오래되었으나 능히 중수하지 못하고 있으니, 이는 우리 고장 사람의 공동 책임이다.”라고 했다. 이에 재물을 각출하여 용두사에서 典香하고 있는 승려 端永이란 자를 시켜서 그 일을 주관하게 했다. 내가 이 일들을 임금께 아뢰니 금단하지 말라는 분부가 내리게 되었다.<sup>63)</sup>

위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1379년 왜구가 축석루를 불태운 이후 축석루 중건은 진주지역 향촌사회의 30여 년의 숙원이었으며, 그 중건

60) 1379년 5월 양백연 등이 진주를 노략질하던 왜구를 격퇴하였다. 『高麗史』 卷114, 列傳 楊伯淵傳; 『고려사절요』 권31, 우왕 5년 5월조.

61) 『松亭集』 卷4, 記 <矗石樓重修記>.

62) 『秋帆文苑續集(上)』 卷7, 時報 <矗石樓沿革記>.

63) 『동문선』 권81, 기 <晋州矗石樓記[河崙]>; 『호정집』 권2, 기 <矗石樓記>.

의 일이 그때 처음으로 거론된 것도 아니었다. 1409년 12월에 부임한 領牧使 崔迤(1356-1426)는 “진주는 지역이 남쪽 끝이라서 여름 더위가 몹시 심하니, 사신이나 빈객을 대접하자면 마땅히 서늘한 곳이 있어야 하겠다.”라면서 불타 없어진지 오래된 축석루 중건을 고려하였다. 그러나 公廳과 멀리 떨어져 있고 공력도 많이 들고 일도 복잡할 축석루 중건 대신에 객사 앞의 삼간 누문을 중수하기로 하고 1410년 봄에 중수를 마쳤는데, 편액을 봉명이라 했다.<sup>64)</sup> 이처럼 영목사 최이가 축석루 중건을 실행하지 못한 것은 많은 재물과 인력 및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만큼 축석루 중건은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었다.

진주지역 부로들은 그들 스스로 중건을 결의하면서 하륜의 후원을 기대하고 서로 간에 정보를 주고받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하륜도 누관의 경영이 정사하는 자의 餘事이긴 하지만 그 흥폐로써 인심과 世道를 짐작할 수 있다면서 누관의 경영이 결코 하찮은 일이 아니라고 했다. 하지만 그 役事는 누구 맘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sup>65)</sup> 그래서 하륜은 진주지역 부로들의 축석루 중건의 사실을 태종에게 아뢰었으며, 태종으로부터 금단하지 말라는 特旨을 받았던 것이다.

1412년 12월에 부임한 判牧事 權衷은 判官 朴紱<sup>66)</sup>과 함께 여러 부로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1413년 봄 2월에 남강에 제방을 수축했다. 이로써 피지배층의 전답과 마을은 남강의 범람으로 인한 수해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 그리고 축석루 중건에 필요한 인력으로는 自給을 못하는 자와 놀고먹는 자 수십 명을 소집하여 충당함으로써 그 중건이 9월에 완

64) 『浩亭集』 卷2, 記〈鳳鳴樓記〉; 『東文選』 卷81, 記〈鳳鳴樓記〉.

65) 태종은 역사를 꺼려하였으며, 『태종실록』 권22, 태종 11년 8월 2일(신묘) 비록 의정부의 건의를 받아들인 것이지만 태종은 충청도와 전라도의 築城을 정지하라고 명하였다. 『태종실록』 권26, 태종 13년 9월 15일(신묘)

66) 『동문선』과 『호정집』의 〈축석루기〉의 朴施紱은 朴紱을 말한다. 뒤의 梁施權의 경우처럼 朴 아래 ‘施’는 ‘君’에 대비될 수 있는 자가 아닌가 생각된다. 박결은 중5품의 진주판관을 지낸 후에 1427년 중4품 함경도경력, 1430년 중2품 의금부지사, 1443년 知礪山郡事를 지낸 朴紱의 오기로 보는 게 옳을 듯하다. 『세종실록』 권38, 세종 9년 11월 21일(을사); 『세종실록』 권50, 세종 12년 윤12월 14일(경술); 『세종실록』 권99, 세종 25년 3월 29일(갑신))

성되었다.

권층에 뒤이어 부임한 관목사 柳琰<sup>67)</sup>은 관관 梁權<sup>68)</sup>과 함께 축석루를 단청하고, 수전의 관개를 위해 水車를 만들어 보급하고, 부족한 남강의 제방을 더 축조하여 백성들에게 이익이 되게 했다.<sup>69)</sup> 진주지역의 수차 보급은 하천수를 관개에 활용하기 위한 조정의 적극적인 개입에 의거한 것이다. 1406년 12월 사헌부에서 수령의 인사 고과의 기준 등을 건의하여 채택한 내용에는 農桑 부분에서 수차의 제조와 보급에 관한 것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sup>70)</sup> 이처럼 조선에 들어와 이때 처음으로 수차의 보급 문제가 다시 전면적으로 거론되었던 시기에서 멀지 않은 1413년에 진주지역에 수차 제조와 보급이 이루어졌다.

한편으로 고려 말기 밭농사에 비해 논농사의 비중을 더 높이려는 노력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했다.<sup>71)</sup> 진주지역의 부로들도 그러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본다. 따라서 부로들은 진주지역 수차의 제조와 보급을 통해 논농사의 발전을 기도하였을 것이다. 비록 수차의 보급이 진주목사에 의해 이루어졌지만 그 보급의 실질적 주체는 축석루 중건을 주도한 부로들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하천수를 수전의 관개수로 활용하기 위한 수차는 그 관개의 또 다른 방법인 제언과 천방에 비해 우리의 자연지리적 조건에 유리하지 못했다. 그리하여 14세기 중엽 이

---

67) 『동문선』과 『호정집』의 <축석루기>에 柳淡이라 한 것은 오기이다. 柳琰은 태종과 동방 급제한 인물로서 判晉州牧事를 지냈다.(『태종실록』 권35, 태종 18년 3월 21일(신미))

68) 『동문선』과 『호정집』 <축석루기>의 梁施權은 梁權을 말한다. 앞의 朴施絜의 경우처럼 梁 아래 ‘施’는 ‘君’에 대비될 수 있는 자가 아닌가 생각된다. 1418년 3월 양권은 진주관관으로 있을 때 독직 사건으로 인해 파직되었다.(『태종실록』 권35, 태종 18년 3월 21일(신미))

69) 『동문선』 권81, 기 <晉州瀛石樓記[河崙]>; 『호정집』 권2, 기 <瀛石樓記>. 1362년 백문보는 농상을 권장하는 차자를 올려 수차의 이용을 건의했다.(『고려사』 권79, 食貨志 農桑) 조선시대 수차의 보급 시도의 추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이 참고 된다. 이태진, 『증보판 한국사회사연구』, 지식산업사, 2008, 41-424쪽.

70) 『태종실록』 권12, 태종 6년 12월 20일(을사).

71) 李泰鎭, 「14·15세기 農業技術의 발달과 新興土族」 『東洋學』 9, 1979(『증보판 한국사회사』, 지식산업사, 2008, 403쪽)

후 진주지역에는 제언의 축조가 급격히 늘어났다.<sup>72)</sup>

축석루의 중건은 부로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가운데, 중앙의 하륜으로부터 후원이 있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남강의 제방 축조와 축석루 중건이라는 두 사업의 목적을 수월하게 달성했다. 이는 진주의 부로들이 <축석루기>에서 “강에 제방을 쌓고 축석루를 지은 것은 모두 그대께서 指畫하여 이루어졌으며, 더구나 임금의 特旨를 입었으므로 한 고을의 영예가 지극합니다.”라고 하였던 사실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축석루 중건은 하륜이 진주지역 부로들로부터 그 사실을 전달받고 태종에게 알려서 특지를 얻어내는 정도의 단순한 매개자의 역할이 아니라 긴밀한 관계 속에서 그 일을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강순과 최복린(1349-1431) 등 진주의 부로들은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하륜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으므로 남강의 제방을 축조하는 일과 축석루 중건을 두고 서로 간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던 것 같다. 그러므로 축석루 중건을 의결하고 재물을 각출하여 승려 단영으로 하여금 그 일을 주관하도록 했던 부로들이 실질적으로 축석루 중건을 이루어내었지만 그들은 그 축조와 중건의 공을 하륜에게 돌렸던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축석루 중건을 주도한 진주지역의 부로들은 하륜의 절대적 지원에 의존하고 있었던 것 같다. 당시 수령조차 역사를 맘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진주지역의 부로들은 당대 최고 권력자로서 태종의 절대적 신임을 받고 있던 진주 출신 영의정 하륜의 후원으로 태종의 특지를 받아 남강의 제방 축조와 축석루 중건이라는 진주지역 부로들의 오랜 숙원을 순조롭게 해결했다. 진주지역의 부로들은 축석루 중건이라는 역사에 필요한 재물을 각출하여 충당했을 뿐만 아니라 남강의 제방 축조를 통한 저습지의 개간을 주도하고, 진주목사와 함께 남강의 물을 활용하기 위한 水車의 보급에 앞장서기도 했다.

여말선초 진주지역의 재지세력으로서 토성 河氏·姜氏·鄭氏·蘇氏 가운데 진주소씨는 재지세력으로서 사실상 소멸하였던 반면에 나머지

72) 『경상도속찬지리지』 진주도 진주목 제언조, 참고.

토성 가문은 중앙의 정치세력으로, 지역의 사족으로 크게 성장하여 그들 가문 출신이 『신증』 진주목 인물조의 모두를 차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축석루 중건을 주도한 대표적인 인물인 최복린은 토성 가문 출신 인물들과 직·간접의 정치·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던 진주지역 부로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 V. 맺음말

이 연구에서는 여말선초 진주지역의 父老의 존재와 인적 관계망 및 활동을 규명함으로써 여말선초 진주지역 사족 구성의 변화의 일단을 파악하고자 했다.

고려말의 진주지역 부로는 河允潏이 관직에서 물러나와 1366년 진주 지역에서 결성한 金剛社의 구성원이었다. 浩甫 河有宗이 1388년 진주 개경원 이웃의 저택에 곁에 세운 長者院도 부로의 존재와 깊이 관련이 있는 공간적 특성을 지닌 재지세력의 교유장소였다. 고려말 진주지역의 부로는 재지세력의 하층부를 이루고 있던 향리층이 아니라 그들로부터 분화하여 사족화한 가문 출신들이었으며, 13세기 이후 대내외적 배경을 바탕으로 성장한 文士로서 유교 지식층이었다. 여말선초의 사회변동을 겪으면서 그러한 진주지역 사족 가문의 구성과 부로의 인적 관계망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일어났다. 여말선초 他邑에서 진주로 이주한 삭녕최씨 左司諫大夫 崔卜麟·경주정씨 典客令 鄭璣·재령이씨 知甫州事 李惠 등은 선초 진주지역 부로를 대표하는 인물들이었기 때문이다.

1413년 前判典醫監事 姜順과 前左司諫大夫 崔卜麟은 ‘諸父老’들로 통칭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李惠·河之沔·鄭從吾 등과 함께 축석루 중건을 주도하였다. 그 중건을 주도한 부로들이 영의정 하륜과 밀접한 정치·사회적 관계를 통한 인적 관계망을 형성하고 있었으므로 그 중건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당시 수령이나 사족들이 맘대로 役事를 일으킬 수 없었던 상황에서 영의정 하륜이 태종으로부터 특별히 승낙을 받음으로

써 축석루를 증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고려말 부모들과 달리 조선초 부모들은 축석루 증건이라는 역사만이 아니라 남강의 범람으로부터 안정적인 농업생산력을 확보하기 위한 남강의 防川 축조를 주도하고, 진주 목사와 함께 남강의 물을 관개수로 활용하기 위한 水車의 보급에도 앞장서는 등 향촌공동체의 경제활동을 주도하였다.

※ 이 논문은 2021년 4월 30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1년 5월 17일부터 6월 3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1년 6월 4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참고문헌

『三國史記』, 『高麗史』, 『高麗史節要』, 『太宗實錄』, 『世宗實錄』, 『慶尙道地理志』, 『世宗實錄地理志』, 『新增東國輿地勝覽』, 『東文選』, 『東城勝覽』, 『晉陽誌』, 『江城錄』, 『慶州鄭氏平章公派世譜』, 『朔寧崔氏大譜』, 『晉陽姜氏大同譜』, 『晉陽鄭氏族譜』, 『晉陽河氏族譜』, 『晉陽河氏大同譜』, 『晉州柳氏世譜』, 『稼亭集』(李穀), 『剛齋集』(宋釋圭), 『敬齋集』(河演), 『謙齋集』(河弘度), 『郊隱集』(鄭以吾), 『丹溪遺稿』(河緯地), 『淡庵逸集』(白文寶), 『陶隱集』(李崇仁), 『遁村雜詠』(李集), 『茅溪集』(李命培), 『慕齋集』(金安國), 『茅村集』(李漣), 『牧民心書』(丁若鏞), 『牧隱藁』(李穡), 『牧隱詩藁』(李穡), 『默翁集』(權漢), 『私淑齋集』(姜希孟), 『三峯集』(鄭道傳), 『棲山集』(李正浩), 『雪嶽集』(姜瑒桓), 『松塘集』(趙浚), 『松亭集』(河受一), 『新菴集』(李俊民), 『愼庵集』(崔兢敏), 『雙梅堂篋藏集』(李詹), 『陽村集』(權近), 『備齋叢話』(成倪), 『容軒集』(李原), 『耘谷行錄』(元天錫), 『益齋亂稿』(李齊賢), 『寅齋集』(申槩), 『栲軒集』(李石亨), 『晉山世藁』(姜淮伯·姜碩德·姜希顏), 『春亭集』(卞季良), 『筆苑雜記』(徐居正), 『豐墅集』(李敏輔), 『亨齋詩集』(李稷), 『浩亭集』(河崙), 『國朝文科榜日』(奎 106), 『大東地志』(古 4790-37), 『延安府誌』(奎 10889)

강제훈, 「조선초기 家系繼承 논의를 통해 본 姜希孟家の 정치적 성장」, 『조선시대 사학보』 42, 2007.

강호선, 「2017~2018년 고려시대사 연구의 회고와 전망」, 『역사학보』 243, 2019.

류창규, 「고려말, 조선초 재지품관의 유형과 그 지위」, 『역사학연구』 17, 2001.

류창규, 「조선 太宗代 河崙의 경제정책과 『民本』」, 『역사학연구』 32, 2008.

박용국, 「太宗代 河崙의 정치적 存在樣態의 變化」, 『남명학연구』 28, 2009.

박용국, 「智異山과 晉州, 그리고 河崙의 삶」, 『역사교육론집』 44, 2010.

박용국, 「태계 하진의 家系와 行歷에 대한 연구」, 『경남권문화연구』 22, 2013.

박용국, 「진주성 축석루의 연혁 고증과 그 이야기」, 『선비문화』 25, 2014.

박용국, 「부사 성여신의 가계와 그의 삶」, 『부사 성여신』, 예문서원, 2015.

李東熙, 「朝鮮初期 官人層 研究 - 高麗와 朝鮮 支配勢力間의 關係 규명의 일환으로 -」, 『國史館論叢』 72.

이석규, 「조선전기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2017~2018)」, 『역사학보』 243, 2019.

- 이익주, 「고려 후기 정치체제의 변동과 정치세력의 추이」, 『한국사』5, 한길사, 1994.
- 채응석, 「여말선초 향촌사회의 변화와 埋香」, 『歷史學報』 173, 2002.
- 崔承熙, 「태종조 왕권과 정치운영체제」, 『國史館論叢』 30, 2001.
- 한충희, 「朝鮮 太宗王權의 政治的 基盤 研究」, 『大丘史學』 63, 2001.
- 한충희, 「朝鮮前期 晋州姜氏 啓庸派 家系研究」, 『朝鮮史研究』 12, 2003.
- 박용국, 『지리산 단속사』, 보고사, 2010.
- 박종기, 『지배와 자율의 공간 고려의 지방사회』, 푸른역사, 2002.
- 李秉休, 『朝鮮前期 士林派의 現實認識과 對應』, 一潮閣, 1999.
- 李樹健, 『韓國中世社會史研究』, 一潮閣, 1984.
- 이수건, 『한국의 성씨와 족보』, 서울대출판부, 2003.
- 이우성, 『한국사회사연구』, 지식산업사, 1986.
- 李泰鎭, 『朝鮮儒敎社會史論』, 知識産業社, 1989.
- 이태진, 『증보관 한국사회사연구』, 지식산업사, 2008.
- 장동표, 『조선시대 영남 재지사족 연구』, 태학사, 2015.
- 鄭杜熙, 『朝鮮初期 政治支配勢力研究』, 一潮閣, 1983.
- 丁震英, 『조선시대 향촌사회』, 한길사, 1998.
- 지두환, 『朝鮮前期 儀禮研究』, 서울대출판부, 1994.
- 蔡雄錫, 『高麗時代의 國家와 地方社會』, 서울대출판부, 2000.
- 최선혜, 『조선전기 지방사족과 국가』, 경인문화사, 2007.
- 한영우, 『개정관 鄭道傳思想의 研究』, 서울대출판부, 1973.
- 한영우, 『조선전기사회경제연구』, 을유문화사, 1983.

## The existence and characteristics of Jinju's 'Bulo' during the Late Goryeo and Early Joseon Period

Park, Yong-guk

This paper is a study on the existence and character of Jinju region's 'Bulo' during the Late Goryeo and Early Joseon Period. Bulo is a member of the Gyeolsache district of Jinju region in the end of the Goryeo period, called Gungangsa. Bulo and Gungangsa are data that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the ruling powers in Jinju region at the end of the Goryeo period. Jangjawon was also a place of communication between the local powers with spatial characteristics that were deeply related to Bulo's existence. Bulo in the Jinju region at the end of the Goryeo period was not Hyangnicheung, which formed the lower tier of the local powers. They came from a family that had grown from Hyangnicheung to Sajok. They were the Yugyo intellectuals as Munsa, who grew up after the 13th century based on internal and external backgrounds.

Bulo at the end of the Goryeo period was reorganized in line with the political and social changes of the Late Goryeo and Early Joseon Period. Unlike previous eras, Bulos in the early Joseon period, such as Kang Soon and Choi Bok-rin, who led the rebuilding of Chokseoklu, formed a human network composed of Sajoks from the Jinju Toseong family and from Taeup. They were the Sajoks of Jinju region, who led

the reconstruction of Chokseoklu in close political relations with central supporter Ha Ryun. In addition, they led the social and economic change of Jinju region by taking the lead in building dikes to secure stable agricultural productivity and clearing Namgang Wetlands and to supply Sucha for irrigation in Sujon.

**keywords :**

Jinju, Bulo, Gumgangsasa, Jangjawon, Chokseoklu

